

# 천정부지 물가에 국민들 '비명'... 하반기엔 삶 더 각박해진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름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은 정부가 예측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보다 물가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장은 한국은행이 강력한 금리 인상을 정책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서었다. 이에 각박한 삶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삶의 질을 더해 만드는 경제고통지수"가 월 기준 8.4를 기록하며 21년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원자재 공급원 다변화 등, 고물가의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낡은 낙수효과론에 기반한 부자 감세 일정도"라며 취약 계층 지원에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현재의 고물가를 고려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치는 2.2%였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의 양적 긴축으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이 4.7%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5%포인트(P) 상향된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은 것은 11년 만의 처음이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이대로 실현된다면 1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

경제고통지수 21년만에 최고 수준 정부, 유류세 인하 등 안정대책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세에 전쟁 장기화에 단기적 효과 그칠 가능성 높아

한은, 6월 소비자물가 6%대 전망 일각선 "내달 금통위서 '빅스텝' 단행"

물을 기록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3분기까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각박해질 전망이다. 이에 추경을 부풀리기 위해 경기회복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빠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선 경부의 물가 안정 조치가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범위 확대한도(37%) 인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인상, 멀가루값 안정사업 추진 등의 물가 안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분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물가 안정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주 부총리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 중심 통화정책을 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은행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공급과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모두 두 배는 수준을 지속하면서, 당분간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다"고 분석하며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공식품·외식 물가 오름폭 확대로 5월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소 5% 후반대에서 6%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분기 기준으로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3분기(5.5%)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금융기자와 비교해 최근 물가 여건을 살펴보면, 원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높은 오름세와 환율 상승세, 민간소비 증가세 등이 상당 기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한은이 다음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정용 한은 총재가 최근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는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



한율에 주는 영향, 가계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연준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현경 기자 hhh893@sporbiz.co.kr

## "기후위기 관련 미디어보도 반복해야 효과"

오하이오주립대, 국립과학원회 보고서 게재... 공화당원 기후과학 부정적 사람에 영향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미디어보도가 사람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그러나 단편적인 보도로는 사람들이 쉽게 잊고 경각심도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자주 반복 보도해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진들은 미국 과학 아카데미의 저널인 미국국립과학원회(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미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기후행동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골자다.

사람들이 기후에 대한 언론 보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미국인들 상대로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정확한 기후과학이 반영된 미디어 기사를 읽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2898명의 온라인 참가자를 모집했다.

연구진은 과학적 발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보도를 읽고 난 후 기후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지지하는데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기후과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언론매체에 사람들이 노출되면서 그 영향은 빠르게 사라졌다.

연구진은 "미국 대중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과학 보고조차 사람들의 기준에서 매우 빠르게 잊혀진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확한 과학 보고의 영향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더 자주 반복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마스 우드 교수는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 같은 정확한 메시지를 반

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만약 그들이 그것을 한 번만 듣는다면, 그것은 매우 빨리 잊어버린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실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동일한 참가자들을 무작위 그룹에 배치했다. 그리고 과학 기사, 기후과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서, 기후위기에 대한 단파적 논평을 하는 기사, 또는 가짜 기사 등 다양하게 일도록 요청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정책에 대한 태도와 기후 과학에 대한 이해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각 단계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믿는지 질문을 받았다. 또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선호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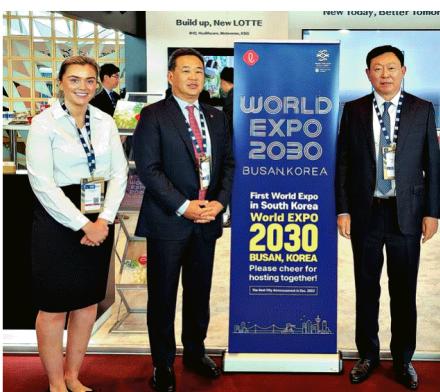
첫 번째 단계 이후, 기후 과학에 회의적이었던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고했고 기후 파괴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더 기꺼이 고려했다. 그러나 세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에 이르면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의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또, 기후과학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공화당원들과 이미 기후 과학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나타났다.

가디언은 이에 대해 이 연구가 종종 과학에 대한 보고가 정치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받고, 심지어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한 단파적인 접근을 반영하는 많은 태도를 보이는 미국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이색했다.

연구진은 "미국인들이 기후 과학에 대한 기사 내용에 노출되면 정부도 인식을 향상시키지만 그 개선은 오래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또한 기후 과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노출되면 정부도 향상은 다시 무효화되거나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ark@sporbiz.co.kr



신동빈 롯데 회장, 아일랜드서도 부산엑스포 홍보

신동빈 롯데 회장(맨 오른쪽)이 21일 아일랜드 더 블린에서 열린 국제 소비자기업 협의체 '소비재포럼(CGFI)'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롯데 제공

## Knotted ♥ SKINRx LAB LOVE YOUR HAND

